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의 주인공으로

아파야 청춘이고 흔들려야 인생이다. 옳은 말이다. 청춘은 아파야 성장하고 인생은 흔들려야 철이 들기 때문이다. 어린나이에 부처님 곁으로 온 나는 어지간히 숱한 어려움을 몸으로 부딪치며 마음의 키를 키워왔다. 타고날 때부터 수상쩍게 생긴 얼굴 탓만은 아니었다. 성깔도 지랄이고 고집도 거친 편이어서 부드러움을 등지고 살아왔다.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하니 어른 스님들은 별종취급을 했고 선배, 동료들은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 마냥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접근을 꺼려했다. 황소고집을 지닌 이단자로 아웃사이더가 되어 외톨이로 살았지만 워낙 눈물이 많아 혼자서 자주 울었다.

책벌레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따라다닐 만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빛과 어둠사이를 윤회하며 나만의 세계를 즐겼다.

그 당시 통도사 후원엔 웬 놈의 학력 좋고 실력 좋은 행자들이 그리도 많던지 사미계 수계명단에서 몇 년을 두고 나는 항시 밀려난, 선택받지 못한 패배자였다. 그러다가 뒷방의 어느 승적도 없는 노스님이 구제해주어는 의문부호로 배낭하나 달랑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을 말하면 커피 맛이 아니요, 김치를 먹고 김치 맛을 말하면 김치 맛이 아닌데 그렇다면 부처는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설법에서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만큼을 기억해 문자로 옮길 수 있었을까? 영혼의 존재, 내생(來生)은 허구일까? 참 일까?

인도에서 머문 3년째 되는 어느 날, 나는 천지개벽하듯 모든 의혹이 한 순간에 풀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 깨달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순간이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남도 속이지 않고 나도 속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 후, 네팔과 티베트를 거쳐 중국에서 7년 동안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경전과 어록을 살피게 된다.

불교의 핵심사상은 연기법칙(緣起法則)과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연기법칙과 무아사상(無我思想)은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며 당생윤회(當生輪廻)에 방점을 찍어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중도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선지식이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이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운데(中)가 아니라 누리는 중(中)이기 때문이다. 중(中)에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니라 양변무애(兩邊無碍)이며 무변중심(無邊中心)인 것이다.

중(中)은 정(正)이다. 대(對)와 변(邊)에 걸림없이 자유로운 것이 중(中)이요 사(邪)와 미(迷)에 치우침없는 머묾없는 머묾이 정(正)인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이다. 게으름은 병이자 어둠이다. 정진(精進)은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길이자 빛인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며 몸과 마음을 송두리 채 던지는 간절함만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등불이 된다. 진리의 등불, 마음의 등불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 일이다.

부처님 유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간절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등불

사미계를 받고 행자 수업을 마쳤으나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미 백양사에서 수계한 사미승 이었다. 다만 당시엔 백양사는 비구, 대처승의 대립으로 통도사에서는 인정이 안 되어 행자생활을 재수한 셈이었다.

읽고 쓰는 작업에 몰입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독자란 글에는 '향봉'이란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찾아가 만난 스님이 조오현, 김정휴, 석성우, 석지현, 이병석 스님 등이다. 내가 심부름꾼이 되어 만든 게 '승려시인회'였고, 회장은 오현 스님이 간사는 내가 맡았다. 동인지도 여러 차례 발간했는데 재정 담당도 향봉이었다. 1969년 겨울의 '해인사 수행승들의 난동사건'의 주동자가 황소고집 향봉이었기 때문이다. 큰스님들의 법상(法床)을 까딱하면 엎어버린다는 소문이 자금동원력으로 연결되는 해프닝이 되었던 것이다.

군종병으로 3년 만기 제대 후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꾼이 된다. 첫 직책이 편집국장으로 시작해 부사장으로 불교신문과의 인연을 접게 된다.

어느 해 어느 날 뼛속까지 파고드

몽산(蒙山) 법어와 나옹(懶翁) 스님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임제종지를 최후까지 계승한 양기파(楊岐派) 법맥은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선풍(禪風)을 드날리게 된다. 고균비구(古筠比丘)라고도 알려진 몽산은 〈육조단경(六祖檀經)〉을 편찬하여 덕이본(德異本)을 남긴 인물로 육조의 법을 널리 유포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몽산은 제방을 다니면서 당시의 여러 선사들을 참방하다 나중에 복주(福州) 고산(鼓山)의 환산정응(ød山正凝)을 참방하고 그 밑에 수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그가 다시 〈육조단경〉을 편찬한 것은 1290년이었다. 이 덕이본이 나오고부터 〈육조단경〉 오본(五本) 중 덕이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몽산이 남긴 저술로는 〈불조삼경서(佛祖三經序)〉가 있고, 〈몽산화상수심결(蒙山和尙修心訣)〉과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이 있다. 삼조삼경은 〈42장경〉과 〈유교경〉, 그리고 위산대원선사의 경책문을 합하여 부른 이름이다. 육도보설은 일체유심조의 대의에 입각하여 사성육범(四聖六凡)의 십법계(十法界)를 설하여 수행을 통한 범부를 버리고 성인에 들어가는 사범입성(捨凡入聖) 이치를 설하여 도를 닦기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수심결은 몽산의 법어집으로 대중에게 설한 법문인 시중(示衆)과 법어약록(法語略錄)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법어약록은 고려 말의 나옹선사가 초역한 책으로, 책 뒤에 보제존자법어부(普濟尊者法語附)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제존자는 나옹 스님의 시호이다. 이 책이 고려 말부터 많이 보급되어 불가(佛家)에서 즐겨 읽는 책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몽산의 어록이나 저술은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 간행되었는지 정확한 연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조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증되는 언해본이 있고, 선조 때에 이르러 순창의 취암사(鷲岩寺)에서 간행된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몽산화상법어약록본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 4본이나 있다.

몽산의 선풍이 고려에 수용된 배경에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 선사의 상수제자인 보감(寶鑑)국사 혼구(混丘)와 혼구의 제자 여찬, 경초, 충탄 등의 노력이 있었다. 여찬과 경초는 중국에 가 제방을 순력했고 특히 여찬은 당시 중국 천목산에 주석하고 있던 임제종의 고승 중봉명본(中峰明本)을 참방하고 온 인연이 있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몽산의 선풍이 고려에 수용되어 고려불교, 특히 선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몽산의 제자 철산소경이 고려에 다녀간 적도 있고 하여 당시 선종을 주도하고 있던 수선사계 뿐만 아니라 가지산문계의 후손인 일연의 제자 혼구와 그의 문도들이 몽산 선풍을 수용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또한 여말(麗末)에 이르러서 몽산의 선풍과 함께 중국의 고봉원묘(高峰原妙)의 선풍도 함께 수입된다. 고봉 역시 간화선의 요지를 설한 〈선요(禪要)〉를 남긴 사람으로 몽산의 간화선법과 같은 임제종계의 정통이었다. 이러한 선풍이 태고를 비롯한 나옹, 백운의 려말 삼사(三師)에 의해 널리 퍼지면서 불교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태고는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 왔으며, 석옥청공의 스승인 금암선사가 고봉원묘의 도반이었다. 고봉은 〈선요〉에서 참선의 삼요(三要)를 제시한다.

대신근(大信根), 대분지(大奮志), 대의정(大疑情)이다. 이는 간화선에 있어서 화두타파를 위해 제시해준 공부법이다. 몽산은 그의 법어에서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중시하면서 오후인가(悟後印可)를 주장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비록 간화선의 거장들인 몽산이나 고봉의 선법을 수용한 고려선법이지만 간화선 일변도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태고는 지눌이나 나옹, 혹은 경한보다 간화선 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나옹은 지공의 법을 이어 법맥 계승 면에서 임제종 정통이 아니었고, 경한은 석옥의 법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무심선(無心禪)을 주장하였다. 나옹 역시 몽산법어를 초록했으나 간화보다는 무심 쪽에 가까웠다. 지눌은 중국의 규봉종밀의 사상을 이어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였다. 이는 송대의 영명연수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연수는 염불선을 내세우며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주장하였는데 원래 법안종의 조사였던 그가 나중에는 정토종의 조사로 추앙되기도 하였다.

타인 기쁨서 최고의 환희 만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⑪ 보살의 체성은 무엇인가

菩薩樂代他受逼迫苦時æ 大悲心淨。智慧觀他受苦悲心æ 在中住。悲心住處則苦不得住。雖復悲者為一切眾生苦之所纏。如是為他利樂心生歡喜勝解脫樂。菩薩見他受苦如自己苦。自己得樂欲與他人。自覺勝於涅槃。悲者常欲自受其苦與他樂。悲之與苦不得一剎那頃而得共住。行惡者見他苦時欲得遠避。見他得樂心不喜悅。菩薩見他苦時不欲遠離。無愛者無一切苦業。何以故。除他人苦生大歡喜故。菩薩與他大樂不必歡喜。見他與人少樂心大歡喜。何以故。體性爾故。菩薩見他得樂自己亦樂。菩薩見人與他少樂。云何不生歡喜。

번역 | 보살은 타인의 핍박과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즐거워할 때 대비심이 깨끗합니다. 지혜로 타인의 괴로움을 관찰하여 그 가운데 머무는데, 자비심으로 머물기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비록 자비로운 이가 일체 중생을 위해 고통에 얽매이지만, 이와 같이 타인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위해 마음에 환희와 승해탈락(勝解脫樂)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타인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자기가 즐거움을 얻으면 타인에게 주고자 하기에 자연 깨달음이 열반보다 수승합니다. 자비로운 이는 늘 자기가 고통을 받아도 타인에게는 즐거움을 주고자 하고, 자비로 주기에 괴로움이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는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멀리 도망하려 하고 남의 즐거운 것을 보면 마음이 즐겁지 않지만,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멀리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애착이 없는 이는 일체의 괴로운 업도 없는데,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없애므로 큰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타인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지만 반드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성(體性)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보살은 남이 즐거우면 자기 역시 즐겁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남에게 적은 즐거움이라도 주는 것을 보면 어찌 환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설 | 본문에서는 보살의 체성(體性)에 대해 말한다. 체성(體性)이란 '근본 바탕의 성품'이란 말이다. 따라서 보살이란 존재의 근본 성품은 '남이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는 성품'이다. '천성(天性)'이란 말이 있다. '타고났다'는 말인데,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면을 발견했을 때 쓴다. 남이 성을 내어도 맞부딪혀 성낼 줄을 아나, 남이 욕을 해도 같이 대꾸하며 욕을 할 줄 아나, 남이 속이고 이익을 편취해도 바보처럼 고맙게 받아들이지를 않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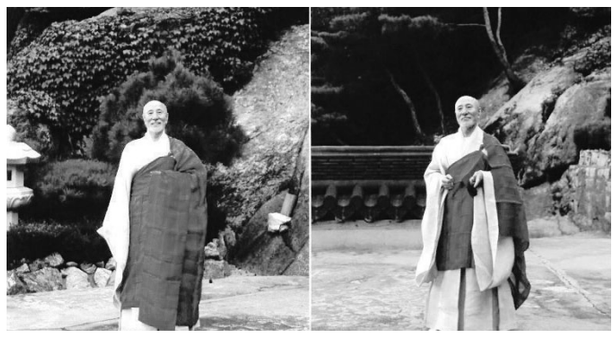
사실 보살이란 먼 데 별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존재다. 아침이면 자기 집 마당뿐만 아니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분들이다. 직장생활에 지쳐 편히 쉬며 TV나 보며 쉴법한 휴일을 쪼개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찾아가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이들이다.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는 게 미안해 기어코 이웃을 불러 대접하는 우리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자매다. 아마 이런 분들은 '갑질'이란 말의 의미도 모를 것이다.

천성이 그렇다. 기어코 남이 즐거워야 자신도 행복하다. 그러니 누군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음번에는 좋은 일을 함께하자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체득한 이를 자각(自覺)이라고 부른다. 누가 가르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自覺)은 열반보다 수승하다고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 보살은 강조한다.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